

화학사고 대비를 위한 비상대응계획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박재득, 이영희, 윤 이¹, 김성범¹, 문 일*
연세대학교; ¹국립환경과학원
(jaedeuk@yonsei.ac.kr*)

화학공장은 인화성액체, 가연성가스 및 독성 물질 등 유해하고 위험한 화학 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하고 있으므로 화재, 폭발 및 위험물질의 누출 등 잠재 위험성이 매우 높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규모의 화학공장이 일반 공장 가운데 비계획적으로 자리 잡고 있거나, 주변 주거 지역에 발달되어 있어 화재, 폭발, 누출과 같은 중대 산업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엄청난 인명,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잠재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유해·위험 물질을 취급·저장하는 설비와 운전 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고, 위험요인을 찾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일정량 이상 사고대비 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사업장 내의 비상연락망, 방제조치계획, 주민 대피 등의 자체방제계획서를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자체방제계획서 대상 업체의 70%가 중·소기업 사업장으로 자체방제계획서의 독자적인 작성에 어려우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에 의해 제출한 자체방제계획서의 비상대응계획이 미흡하게 작성되어 있어 실제 사고발생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자체방제계획서 작성을 용이하게 하고 실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지원 도구(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